

셋을 위한 연주

<두 번 반 매어진>

이윤이 개인전, 인사미술공간

2014.6.20 - 7.18

정문 옆 벽이 있던 자리에 하모니움이 놓여 있었다. 초등학교 교실에 하나씩 있었던 풍금과 닮았다. 건반이 있는 부분이 거리를 향해있고, 전시장 안으로는 편평한 뒷면이 보인다. 악기가 벽면의 일부가 되어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악기는 오프닝과 전시 마지막 날 한 차례씩 연주가 되었다. 하지만 연주가 없는 대부분의 시간에도 상상은 가능하다. 악기 앞에 앉은 연주자의 등이 거리를 향하면 소리는 전시장 안으로만 울리게 될까? 회전문처럼 절반쯤 안과 밖으로 걸쳐진 채 무작위의 방향으로 소리를 던질 수도 있을 듯 하다. 모든 문이 닫힌 한 밤에라도 누군가 호기롭게 페달을 밟는다면 이웃한 창덕궁 너머로 그 연주가 들릴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악기는 전시의 프롤로그이면서 동시에 전시장 1층에 있는 작품 *Meet me at the Eagle*의 일부이다. 단 채널 영상, 반투명한 독수리 모양의 트로피 설치물, 오르간의 도면 그리고 바닥에 깔린 빨간 카펫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르간과 독수리 형상은 영상에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메이시 백화점과 연관이 있다. 작동가능한 것 중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파이프 오르간과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독수리 상이 있는 고급 백화점이다. 화려하고 우아하게 장식된 백화점에 성당에서나 마주 할 듯한 거대한 오르간이 놓인 것은 이미 기이한 조합이다. 여기에 종이로 만든 왕관과 망토를 걸친 두 사람의 노래와 움직임이 더하면 모더니티의 성전인 백화점은 일시적인 무대로 변한다. 영상은 다양한 프레임으로 구성된 하나의 연주처럼 흘러간다. 4분의 3박자 악보의 손뼉 리듬 소리로 시작하는 프롤로그에서 부터 '이야기를 따라 여행을 떠나자'고 초대하는 명랑한 멜로디의 노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노래하는 입모양이 보이는 인터미션에서 피아노를 배우던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유로운 연상과 고백이 음악을 즐기삼아 이어진다.

전시 제목인 <두 번 반 매어진>은 어떤 암호처럼 머리에 남는다. '두 번 반 매어진'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으로 축수가 돌는다. 두 번 반은 횡수로는 세 번의 행위, 완결되지 않은 세 번의 시도이다. 여기저기 셋이란 모티브를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무게 중심을 나눈 셋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지면 위에 놓인 삼각대처럼 어딘가 한 점은 다리가 짧다. 작품 제목 *세속적인 삼위일체*처럼 3이라는 숫자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신문형태로 인쇄된 40매 분량의 종이 작업 *날개 없이 나는 빨간 새를 보았다. 다가갔을 때 그것은 총알이었다.* 처럼 세가지 요소의 - 텍스트, 자살한 여자 연예인의 사진, 그리고 빨간 색 넥타이의 매듭 부분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 반복 구성도 있다. 여기서 다시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묶인 넥타이들의 사진들과 회전문, 균함이 정박한 항구는 전시 제목과 함께 한 번 더 '매듭'이라는 연상의 고리와 만난다. 그리고 보니 전시장 전체도 3층의 구조. 지하층이 이등변 삼각형의 구조라면 1층의 작품들은 직각 삼각형이랄까? 근거 없는 추론은 계속된다.

전시장 2층은 앞서 언급한 신문 형태의 작업과 함께 세 편의 영상이 각각의 자리를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영상의 내용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고백은 주어를 상실한 상태로 이야기되거나 제 삼자의 몸이나 목소리를 입고 있어 적정한 감정의 거리를 유지한다. 영상 속의 대상이나 사건들은 이를 명백히 지칭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드로잉, 서술, 또는 행위들과 함께 맏히면서 서로 결속 가능한 의미 작용에서 벗어나고 있다.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나이프, 스푼, 포크*(2013)는 수잔 손택의 에세이 *In memory of their feeling*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존 케이지와 머스 커닝햄, 재스퍼 존스의 전시 도록에 기고한 글로, 이 세 작가를 나이프와 스푼 그리고 포크로 가정하고 “그들이 한 비행기(또는 평지 Plane)에 같이 있다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질문한다. 여기서 착안한 이윤이 작가는 다른 언어, 국적, 표현 방식을 가진 세 인물을 두고, 그들이 함께 스크립트를 쓰는 동안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의 영역 속에 섞여 들어가는 방식을 고안한다. 서로의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면서 타인의 실제 속에 픽션으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파란 드레스의 모티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때로는 ‘나(I)’를 주어로 하는 나레이션이 등장하지만, 연이어 ‘너(You)’의 감정을 설명한다. 목소리는 글자들로 대체되기도 한다. 팽팽하게 당겨졌다 느슨해지는 천의 형태처럼, 세 개씩 모였다가 흩어지는 나무열매들의 배열처럼 이야기는 주인을 찾아왔다 놓치는 연속적 운동이다. 분산하는 몸과, 이동하는 물체들, 흔들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균형에 대한 환상(Fantasy of symmetry)”을 구현하는 이 영상은 하나의 주인공이라도 이탈하면 성립될 수 없는 가위바위보의 게임이 된다.

*습지, 영주권, 트리오*는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바탕으로 한 사적인 내러티브가 가장 부각된 영상이다. 영주권 문제로 미국을 떠나게 된 연인과의 헤어짐과 브루클린에서 개발에 실패한 뉴저지 한인타운으로의 이사의 과정, 사슴 뿔을 쓴 채 화분 속의 관목을 습지로 옮겨 심는 과정이 다소 감상적인 가스펠 송(‘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로 시작하는)을 동반하고 있다. 이민자, 여성, 이주, 사슴 모두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존재와 상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영상은 화자의 내부와 주변에서 일어난 감정과 장소가 서서히 분해가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젊은 여성의 시선과 행위들로 짐작되는 영상의 이미지가 다소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와 만나 낯설고 모호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사적인 이야기의 감상적 측면을 중화시켜 준다.

실제와 허구를 섞어 이야기의 정체성을 흐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혼합하는 구조는 또 다른 영상 *마야(Not that)*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 마야의 이름은 마야 문명을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거기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호명함으로써 의미가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가 개입한다. 인물의 이름과 그녀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배경 이미지에 느닷없이 침투하는 너무나 한국적인 쇠구, 사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의미의 자유연상으로 다른 시공간에서 덧붙여진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환타지적인 사실을 만들어낸다. 단순하고 목적없는 행위들과 연결점을 상실한 채 징검다리처럼 넘어가는 음악들도 이같은 환타지를 더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모습이나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국 취미를 자극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일상의 수준으로 하강한 신화의 장면들만 남는다.

지하 층 어두운 공간에 연출된 *세속적인 삼위 일체*는 흑백의 2 채널 영상과 구석진 곳에 놓인 드럼, 그리고 그 물체를 반사하는 거울로 이루어진 설치이다. 1층의 설치처럼 여러 요소들이 공간 전체와 함께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각각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 두 개의 영상이 공간을 지

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상 속의 남자는 회전문에서, 여자는 항구에 정박한 배를 배경으로 각각 북을 연주한다. 동일한 자리에서 회전하는 남자처럼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여자도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자리에 머무는 두 남녀의 모습이 관계의 지난하고 반복적인 심리를 전달해준다. 한 편 영상의 각각 두 채널에서 송출되는 리듬의 소리는 전시 공간에서 새로운 연주로 합성되고, 거울을 통한 사물의 반사는 제자리 걸음이나 회전문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떠오르는 기억을 암시한다.

각각의 작업 내부에서도 음악이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이 전시 전체도 하나의 연주처럼 구성되어 있다. 총실한 관계는 시선의 배반과, 균형은 그 미끄러짐과, 사실은 무덤덤한 환상과 대위를 이룬다. 이들은 개별 작품들의 주제와 형식이면서 동시에 전시라는 하나의 연주를 위한 악보의 기호들이다. 연주는 주술호응이 어긋나 어색한 문장들이나 오랜 이민자의 모국어처럼 화음의 기대에서 신선하게 벗어나고 있다. *Meet me at the Eagle* 의 영상 속의 “나는 악기다. 어쩌면 고장난 아코디언”이라는 나레이션에서 ‘나’가 지칭하는 것이 영상에 등장하는 퍼포머인 화자인지, 메이시 백화점의 오르간인지, 또는 이 모든 상황을 담고 있는 영상 그 자체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셋 다일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마주하게 되는 악기 하모니움에서 이미 전시의 기능을 다 설명해버렸는지도 모른다. 출입구 옆에 부착되어 안과 밖의 통로로도 기능하는 이 악기는 전시 공간에 바람을 불어넣는 페달이다. 이 곳을 지나 들어오는 순간, 공명 장치로서의 전시장은 악기가 되고, 의미는 연주되고 또 변주된다.

김해주(큐레이터)

Playing for Three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Yi Yunyi Solo Exhibition, Insa Art Space

June 20 through July 27, 2014

A harmonium sat where there used to be a wall by next to the front gate. It resembles the pump organ that every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used to have. Its keyboard faces the street; the flat back is seen from inside the exhibition hall. It looks as if the instrument is merged with the wall, penetrating the inside out. The instrument was played once each for the opening and the closing of the exhibition. However, during most of the time while not being played, one could still imagine. If the performer seated at the organ has his/her back toward the street, would the sound reverberate only into the hall? The organ, placed both inside and outside, just like a revolving door, could perhaps shoot its sounds in random directions. If someone pumps the pedal on a night when all doors are closed, would the sound be heard beyond the wall of the neighboring Changdeokgung? This instrument, which arouses our curiosity, is a prologue to the exhibition and also a part of *Meet me at the Eagle*, a piece displayed on the ground floor. Single-channel video, translucent trophy-like installation configured to an eagle, layout of the organ, and red carpet on the floor are composed into a single piece of work. The organ and the figure of an eagle have to do with Macy's Department Store in Philadelphia, which also appears in the video. It is an upscale department store with an eagle figure, known for its pipe organ, touted as the largest in the world among the functioning ones, and its meeting place. Installing a large organ, which is normally seen in a cathedral, at a luxurious and fancy department store is itself an already odd combination. With the songs and motions of the two persons in paper crown and cape, the department store, a temple of modernity, turns into a temporary stage. The video flows like a single performance composed of various phrases. From the prologue that begins with a three-four clap sound to a song that cheerfully invites people to 'a trip following a story', from intermissions with soundless singing mouths to a story about childhood experience of learning how to play the piano, unrestricted associations and confessions continue throughout the music.

The title of the exhibition,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will stay in your thoughts, like some kind of code or cipher. My feelers are up by just looking for something that is tied in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Two half-hitches amount to three acts, that is, incomplete three tries. It is not hard to find the motive of three here and there, but none of them are perfectly balanced on the center of gravity. Like a tripod standing on uneven ground, one of the three points is short-legged. The work titled *The Secular Trinity* explicitly presents the figure of 3, while the 40-sheet paper work printed like newspaper, *I saw a red bird flying without wings when I looked closer it was a bullet*. shows a repetitious

composition of text, a photo of a female entertainment celebrity who committed suicide, and a photo of neckties knotted in various methods and types. Here, once again, the photos of neckties knotted in various methods and types, revolving doors, and ports where military vessels berth meet with the link of association in the name of 'knot'. Come to think of it, the exhibition hall itself has three floors. With the basement structured like an isosceles, are the works on 1F regular triangles? Groundless inferences go on.

2F of the exhibition hall is shared by the newspaper-like work and the three video works. While the content of the video is based on personal episodes involving the characters in them, the inner confessions keep an appropriate emotional distance, as they are told in the loss of a subject, or borrow someone else's body or voice. The objects or events in the videos escape interlocking meanings by being related to drawings, descriptions, or acts which do not explicitly refer to or explain them. Composed of three passages, *Knife, Spoon, Fork* (2013) originates from Susan Sontag's essay, *In Memory of Their Feeling*. The essay was contributed to the catalogue of an exhibition by John Cage, Merce Cunningham, and Jasper Johns, in which the writer compares the three artists as knife, spoon, and fork, respectively, before she asks, "If they are together on a plane (or a flat surface), what would they talk about?" Taking a cue from this, artist Yi Yunyi contrives a method in which she makes sure that the three persons with different languages, nationalities, and expression modes blend into each other's area by relating their own stories while writing the script together. Thus, she has let them perform as characters in each other's story by temporarily dwelling as fictitious characters in the others' reality.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clearly determine the heroine who acts as a motif for the recurring blue dress. While narration with 'I' as its subject sometimes appears, it is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the emotional status of 'you'. And the voices are often replaced with letters. Just like a piece of cloth that is strained and then loosened, and like an array of fruits that gather in three and then disperse, the story is a continuous motion of finding and then missing its owner. Creating "Fantasy of Symmetry" through dispersing body, moving objects, and swaying stories, the video turns into a rock-paper-scissors game, which could only work with both characters present.

Wetland, Greencard, Trio is a video that highlights a personal narrative based on the character's situation and psychology. Separation with a lover who is leaving America due to greencard issues, moving from Brooklyn to an underdeveloped Korea Town in New Jersey, and the process of transplanting a shrub from a flower pot into a wetland while wearing deer antler are accompanied with a somewhat sentimental gospel (beginning with "As the thirsty deer pants for water"). Immigrants, women, immigration, and deer all represent frail and vulnerable entities or conditions, and the video depicts the slow decomposition of emotions and places that transpired around the speaker's inside and surroundings. The images presumably a young woman's sight and action, meet the voice of a somewhat older woman to create a strange and ambiguous identity, which in turn neutralizes the sentimental aspect of a personal

story.

The structure that mixes reality and fiction to ambiguate the identity of a story and create a *mélange* out of a person's identity is repeated in another video, *Maya (not that)*, the name of a woma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reminds the Mayan civilization and means 'not there' at the same time. Here, Kim Chun-su's poem cuts in, suggesting that an object could turn into a meaning when called by name. The all too Korean poem, which suddenly infiltrates the background image that reflects the name of the person and her cultural identity, and the reality based fragments that are added to another space-time through free association of meanings eventually create a fantastic reality. The simple and purposeless acts and the musical pieces, which, having lost connection points, progress like stepping stones, also contribute to such a fantasy. In spite of the heroine's image and background, however, it is far from stimulating the exotic taste, and is left with only the mythic scenes that have descended to the quotidian level.

The Secular Trinity, taking place in a dark underground space, is an installation composed of a black-and-white 2-channel video, a drum placed in the back of a corner, and a mirror that reflects the drum. As is with the installation on 1F, here, several elements and the space itself are combined to create a single piece. The two videos, each showing a man and a woman, are conducting the space. In the video, the two persons play the drum, with the man at the revolving door and the woman with the ship berthed at the port at the backdrop. Like the man who remains swiveling on the same spot, the woman, who switches to all directions of North, South, East, and West, can't get out of her position. The man and the woman, as they stay where they are, deliver the demanding and repetitious psychology of their relationship. Meantime, the sound of rhythm transmitted from the two channels of each video is synthesized into a new performance in the exhibition space, while the reflection of objects in the mirror implies an incessantly occurring memory, like marching in place and the motion of the revolving door.

Just as music has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in each work, the entire exhibition is constructed like a single piece of performance. A counterpoint is created between a faithful relationship and betrayal of glances, between balance and slippage, and between fact and dull fantasy. Serving as the theme and form for respective works, these are also symbols on sheet music for a single performance of exhibition. The performance freshly defies the expectation of harmonics, like awkward sentences with inappropriate correspondence between subject and predicate, or like the native language of a long-time immigrant. In *Meet me at the Eagle*, it is unclear whether 'I' in the narration, "I am a musical instrument, perhaps a broken accordion ..." refers to the speaker who performs in the video, the organ in Macy's, or the very video that encapsulates the entire situation. Maybe, it refers to all of the three. The harmonium, which one encounters even before stepping into the exhibition hall, has perhaps already explained the function of the exhibition. Attached to the entrance and serving also as a thoroughfare connect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the instrument is the pedal that pumps air into the venue of exhibition. As one

passes by and enters the space, the exhibition hall as a resonance device turns into a musical instrument, and meaning and its variations are played.

Kim Haeju (curator)